



## 능청스럽게 풀어놓은 시장통 사람들의 이야기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이야기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신간 중에서 내가 유독 《삼오식당》에 눈길을 보낸 이유는, 표제보다도 더 독특한 작가의 이름 때문이었다. 우리말의 유성음이 주는 경쾌함과 더불어 어딘지 모르게 작위적인 냄새를 물씬 풍기는 '이명량'이란 이름이 '삼오식당'이라는 제목과 어우러져 매우 유쾌하게 다가온 것이다.

그런데 책장을 한장 한장 넘기면서 나에게 또 한 가지 놀라움으로 다가온 것은, 세상살이의 모진 풍파를 겪을 대로 겪은 중·장년층 시장상인들의 이야기를 이제 막 서른을 넘긴 신인의 입담으로 풀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소설집의 무대인 영등포시장이 바로 작가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생의 터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고개를 끄덕일 만큼 《삼오식당》은 철저한 리얼리즘의 소설이요, 경험의 소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종의 연작소설 형태를 띠고 있는 《삼오식당》은 모두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각각의 장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들은 실로 무궁무진하다. 화자이자 작가의 분신인 '이지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삼오식당'을 둘러싸고, 영등포시장 바닥의 다양한 인물들이 마치 두릅에 매달린 생선마냥 이리로 저리로 엮어지며 끝도 없는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낸다. 소설의 실질적인 주인공이 어느 한 인물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영등포시장'이라고 보았을 때, 《삼오식당》은 흡사 양귀자의 《원미동 사람들》이나 임철우의 《그 섬에 가고 싶다》를 연상케 한다. 그러나 양귀자와 임철우의 소설이 어린아이의 시선을 통해 바라본 어른들의 세상이거나 혹은 고향마을의 추억 등을 그려내고 있는 반면, 이명량의 《삼오식당》은 어른인 화자가 직접 영등포 장터바닥에 뛰어들어 그네들과 부

대끼며 겪는 갖가지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뚜렷한 차별성을 보인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삼오식당》에는 날카로운 풍자 대신 유머와 해학들로 가득하다. 시장통 구석구석의 묵은 때까지 여과 없이 내보이고 있는 작가의 능청스러움 때문인지, 이명량을 '여자 성석제'라고 부르고 싶다는 어느 소설가의 말이 일견 그럴듯하다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그러나 《삼오식당》의 곳곳에 배어 있는 '가난'과 '설움'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작가의 애증어린 눈길은 성석제 특유의 '유쾌한 웃음'과도 일정한 거리가 있다. 그것은 마치 "구질구질한 엄마처럼은 절대 살지 않겠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딸이 결국은 어머니의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 아닐까? 벗어나고 싶지만 결코 버릴 수 없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이웃들의 웃음과 눈물이 녹아 있는 그곳. 《삼오식당》은 그러한 곳에 '영등포시장'이라는 공간을 배치시켜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인 모습들을 하나하나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가는 곳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지금은 예전만큼 재래시장을 찾는 이들이 많지 않다. 그러나 《삼오식당》에서 만난 차씨 아줌마와 악바리 할매, 구멍가게 영석이 엄마와 로타리 할머니 등은 오늘도 여전히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시장바닥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제각기 다른 지방의 사투리와 함께 온갖 비속어들을 섞어가며 어제처럼 오늘도 시장통을 들썩이고 있을 것이다. 너무도 솔직하고 꾸밈없는 《삼오식당》의 인물들이 꺼내놓은 웃음과 눈물 때문에 문득, 오늘 재래시장에 가고 싶어지는 것은 혹시 나만의 생각일까? **이문**

이수현 숙명여자대학교 인문학부 4학년